



성
도
의
벗

10
r65

목 차

선교부장 멧세이지.....	1
당신의 질문	6
소식난.....	9
또 하나의 돌몬 가정이 탄생되다.....	11
대관장 말씀.....	12
당신의 족보는 무엇인가?.....	16
한글날의 향연.....	18
결혼후의 일년.....	19
상호부조획 공과	
신학.....	27
방문교사 멧세이지.....	39
일 모임.....	42
문학.....	45
1965년 8월 칙례자 명단.....	56
편집 후기.....	56

"표지설명"

선교부장님 멧세이지의 "인간의 협제애"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선교부장 뎀세이지"

인간의 형제애

스웬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

예언자이며 딸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 대관장인 토
 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계시의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
 지 되심"에 관한 중요한 관념이었다. 이것은 현대의 사람들에게겐
 또는 19세기의 많은 미국인들에게 까지도 그렇게 놀랍게 여겨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개인의 가치에 관한 관념, 즉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만큼 잠재적으로 훌륭하다는 관념으로 충만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
 고 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에서는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심하였다.
 거기에는 서민들에게 섞일 수 없는 왕가의 혈통의 계통이 있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귀족의 계통이 있었으며 그 계통의 틈바구니로
 외부에서 개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그들은 본래대로 철저히
 보호하였다. 영국에서 초기 동문 선교사들은 소위 중류계급의
 와 중에서 전도하였으며 그러한 중류 계급들의 차이나 그들 자체와의 차이로 하류계급들을
 멸시하였다.

교회의 장노들이 옛 영국에 상륙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
 지 되심"을 주장하고 계급과 신분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데 손을 대었을 때 그들은 인간 가족의 근본적인 단절을 인
 식시키는 종교적인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즉 모든 사람
 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후손이며, 모든 사람은 전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각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똑

같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말일의 계시는 비상하게도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인 편견을 초월하고 있었다. 예들들면, 돌본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주목하라.

"볼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육신을 하나로 여기시나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하도다, 그리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니, 예언자가 말한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은 축복을 받으리라."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특권이 있나니 아무도 금지 받지 않느니라."

"하나님은....저들 모두가 그에게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청하셨나니, 그는 그에게 오는 사람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노예이건, 자유로운자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무도 부정하지 아니하시노라. 또 그는 이방인을 기억하시나니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에게 똑같으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이방인도 회개하는 한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니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하나의 육신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어 보지 말것이며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생각치 말것이니라....."

....이제 내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저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마음 속에 유의하고 계심을 아나니, 그러하도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를 온

땅에 배부시느니라"

"인간 가족의 영원한 복지를 위하여 자주 영혼이 크게 부풀었던" 예언자 요셉은 그의 공공연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똑같이 강조하였다. 경쟁적인 종교 그룹에 대한 공개적인 동정의 경멸과 편협함에 관하여 1842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모스람교인은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과, 그의 경전인 코란을 거부하는 전세계의 인류들을 신앙이 없고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 개이며 저주를 받으리라고 유대인은 믿고 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똑같으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교의에 정의를 표하거나 그의 독단에 굴복할 수 없는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인간 종족의 일부에서 다른 종족을 자비심이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반면에 세상의 위대하신 부모는 전 인간 가족을 아버지다운 격정과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보살피고 계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의 후손으로 보고 계시며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는 힘을 "그의 태양이 악에도 선에도 똑같이 솟게하고 공정한 자나 불공정한 자에게도 비를 보내주시므로서" 아무런 편협적인 감정이 없이 대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의 손에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며 현명한 법의 제정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관념에 타협된 편협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선악간에 저들이 육체로 행한 것에 따라" 즉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영국에서 했거나 미국에서 했거나 간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셉의 견해로 보면 돌론교에는 "편협"이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였던 시대에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을 개관하면서 죠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영감을 받았다:

..... 이방인들은 구속을 받으리니 저들은 ...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저들에 대한 관용이니라;

그리고 사탄이 묶이리니, 곧 사탄은 인간의 자녀들 마음에서 자리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시 그는 그가 하늘로부터의 이러한 말씀을 느꼈을 때 말일교회의 관대성으로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복음의 지식이 없이 죽었으되 늦게나마 저들이 허락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또한 이러한 지식이 없이 이후에 죽는 자도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그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는, 나 주는 모든 인간을 저들이 행한바와 저들의 마음에 소망한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나는 또한 합당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죽은 모든 아이들이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을 보았노라.

주님이 "아버지다운 걱정과 아버지다운 관심"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 주신다는 몰몬교의 중요한 비중은 또하나 있다. 그것은 죽은자의 구원이며 이것은 인간의 다른 대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교리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오늘날의 대관장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이 율법과 그 속에 포

함된 의식에 따르므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모두"라고 하는 말은 다만 선택된 몇 사람만을 포함시킴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은 복음의 계획과 같은 것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

모든 국가와 종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공의를 가지고 있다. 구원의 계획은 단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혜아림을 받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던가 또는 거부하던가 할 특권을 갖도록 하는 어떠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죽은자를 위한 구원의 원칙에 주어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칙과 의식을 준비할 필요에 따라,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공정한 또하나의 나라내심으로써, 물론은 죽은자를 위하여 "신전"이라고 알려진 건물속에서 성스러운 기독교인 의식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신전은 현재 13개소에 있으며 미국,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같이 몰몬교는 그 시초부터 전 인간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의 관심과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 부리감 영은 다음과 같이 지당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일부분의 사람도 영원히 고통속에서 울부짖게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마지막 아들과 딸에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며 문의 자물쇠를 풀고 노예를 풀어주며 구원을 받을 모든 영육을 인도할 것이다.

이제 요약해볼 때 인간 가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
(페이지에 계속)

당신의 질문

전세에 육체적으로 불구자가 있었는가?

질문:

복음의 원칙과 전세에 있어서의 상태에 대해서 토론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취한 행위에 대한 벌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답: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선천적인 불구는 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처음에 무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구속하셨으니 인간은 또다시....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되었느니라.

저 사악한 자가 와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한 저희 선조의 전업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갔느니라.

출생시부터 있는 육체적 불구는 어떤 사고나 출생하게 될 때부터 발생된 다른 원인 때든지 전세부터 불구였다거나 영의 세계에서 받은 형벌은 결코 아니라고 단호히 결론지을 수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은 소경이 영의 세계에 있을 때의 잘못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세상

에 오는 모든 영은 전세에서부터 불구로 태어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분명히 도덕이란 것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두괄한 것이다. 출생시부터의 불구는 육체의 세계에 놓여 있는 불행한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육체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질병, 고통, 불구와 같은 것은 현세에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속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상태라 생각하여야 한다. 육체적인 불구가 하늘에서의 상태의 계속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으니 육체란 현세에 속한 것이지 영의 세계에 존재하던 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경전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모든 말일성도들이 받아 드리는 귀절들이 있다. 그 하나는 1832년 2월 16일 죠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든이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낳으신 영적 자녀"(교리와 성약 76장 24절)임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받은 시험속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사도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새긴 제단앞 신전 뜰에서서 희랍 사람들에게 하신 예언적인 언설 가운데 들어 있다. 분명히 이들 희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언설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바른 생각을 지적하면서 절대자를 올바르게 예배하라고 갈파하였으니 희랍인 전체가 부지 불식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 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
 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듬어 찾아 벌겁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
 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
 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
 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
 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세긴 것
 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사도행전 17장 24-29절)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신체에 장애를 받거나 눈이 멀게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의 영적 자녀가 현세에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불구가 된다는 생각
 은 괴상한 생각이다. 질병이나 육체적, 정신적, 불구는 인간이 현
 세에 있을 때 건강할 때가 있듯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의 세계
 에서나 부활한 후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 * * * *

(55페이지에서 계속)

에 나타난 *effectiveness* (유효성)에 관하여 토론하시요.

2. 울푸의 작품이 대조적인 사건들로 가득채워졌다는 것을 시사
 하기 위하여 공과에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을 찾아내시요.
3. "씩는 냄새가 나는 배합은 잠초보다 훨씬 나쁜 것이기 때문
 이도다"라고한 셰익스피어의 시귀절의 깊은 뜻을 토론하시요.
4. 로울리취의 "옛 스투의 노래"에서 특히 분명하고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행과 절들"—그러한 행과 절은 많다—을 지적하고
 왜 그렇게 느껴졌는가 설명하시요.
5. "옛 스투의 노래"에서 묘사된 바 적의 본질과 적에서의 구제에
 에 대한 로울리취의 사상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시요. 회복된
 복음이 주는 충만한 지식과 비교할 때 로울리취의 통찰력은 어
 느 정도까지 제한되어 있는가? *

— 소식란 —

선교부장님의 활동

- * "스펜서 제이. 팔머 신임 선교부장님은 그 사이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특별시장등 한국의 많은 명사들을 방문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특별시장은 우리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11월에 있을 용두동 동부지부의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하기로 선교부장님과 약속하셨다 합니다.
- * "한국 지방부 상호 부조회 바자회"는 별항과 같은 다채로운 순서를 가지고 10월 9일(토요일) 선교부 강당에서 갖기로 되어있어 회원들의 많은 참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지방부 상호 향상회에서는 10월 23(토요일 오후 6시부터 선교부 강당에서 음악 축제가 있을 예정으로 각 지부에서는 이에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소식

- * 삼청지부 지부장단은 이번 전임 지엄달 지부장의 염예로운 회임으로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부장	천	낙	서
제1보좌	주	덕	영
제2보좌	김	동	길

삼청지부 홍숙호 형제는 동양화 및 서예 24점을 가지고 9월 21일—27일 까지의 1주일 동안 중앙 공보관 화랑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는데 회원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부장님의 특별한 초청으로 10월 9일 바자회에 이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했으며 이미 정 국무총리와 팔머 선교부장님은 몇 작품을 사기도

예약이 되었다 합니다.

- * 전 성동지부는 새토 용두동에 신축된 예배당에서 지난 9월 첫 주일부터 집회를 갖고 있으며 지부 이름을 "동부 지부"라 개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동부지부 회원들은 새로운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느라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며 앞으로 동부지부의 발전에 자못 기대가 큼니다. 그리고 헌당식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 청운지부는 예배당의 마투를 비닐 타일토 하고 부족한 교실을 증설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권 소유자들은 선교부 신축공사에 노동을 하여 예산을 거출하고 자매님들은 수예품을 만들어 거출하고 있다 합니다.

"성도의 빛" 편집진 강화

신임 팔머 선교부장님은 "성도의 빛"의 발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사 금번 편집진 강화의 일환으로서 아래와 같이 일차적으로 편집진을 임명하셨으며 몇사람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발행인	스펜서 제이. 팔머
발행인보	한 인 상
편집인	구 중 식

(5페이지에서 계속)

대한 돌몬의 관념은 넓고 관대하며 자비로운 것이다. 더욱 포괄적인 견해는 세상의 어떠한 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하나의 몰몬 가정이 탄생되다

지난 9월 4일 선교부에서는 서부지부 김태선형제와 청운지부 조항림 자매의 결혼식이 신임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팔머 박사님의 주례로 양가 부모 친척, 친지들의 임석하에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들 새 돌몬가정을 다같이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각별하시기를 비읍니다.



돌론 개척자들

1820년 봄 죠셉 스미스가 첫번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사회적 훈련도 쌓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10년만에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채 설흔 아홉이 다 되기도 전에 순교했습니다.

구세주나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와 조화되는 그의 가르침이라던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함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지존의 타당성이라던가, 교회의 조직이 완전한 점에서, 또한 대 인류의 향상과 요구에 대응하는 교회의 운영과 절차와 그 밖의 많은 말일의 대업의 규모에 있어, 이상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해 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대하는 이들로 하여금 선지자톤의 지혜를 깨닫고 가슴 두근거림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옛 사람들이 종종 그랬듯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만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마13:54) 고 물을진대 우리는 서슴치 않고 죠셉 스미스는 이를 높은 하늘에 계신 분에게서 받았다"라고 분명히 대답하겠습니다.

죤스미스가 순교당하고 난뒤 근대의 모세라 일컬음을 받았던 브리감 영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의 당시 당면한 긴급 과제는 성도들을 새 보금자리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전도 입증하거니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으며(히브리서 11장 6절) 오직 이 신앙을 통하여 선지자나 옛 지도자들이 왕국을 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며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33-34절 하였습니다.

전혀 낯선 수평선을 바라 향해에 향해를 거듭하여 마침내 톨럼버스토히아여금 신대륙을 발견케한 것도 신앙이었으며, 대륙의 운명을 굽어본 메이.후라우어호를 미대륙에 도착하게 한것 또한 신앙이었고, 메마르고 황폐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는 땅에 브리감 영과 유타의 개척자들이 영원한 정주처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경주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보다도 더욱 중요하며 이지적인 판단이라던가 체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약속의 땅에 접근하는 동안 때로는 수천의 두리가 험산의 외길에서 우거진 숲을 많이 헤치기도 하며 산정에서 부서져 내려와 계곡에 쌓인 험한 바위들을 치우기도 하였고 결국 피로하고 지친 타박걸음으로 이 계곡에 이르렀으며 포장마차를 끌어드렸던 것입니다.

개척자들의 선발대가 큰 산정에 거의 접근하였을 때 처음으로 대호수의 첫선을 보았고 그 호수의 서편으로 "미국의 사해"가 연결된 것을 보았으며 그 때에 햇빛에 번득이던 물빛은 번영의 약속을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의 징조로 보였습니다.

당시 불도지요 전혀 아무런 소산도 걸우지 못할 것같이 보이던 그 땅이 서부개척과 번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신앙의 역사 가운데 신앙이, 인간의 이지적인 판단이라던가 인간의 체험적인 지식을 능가한다는 놀라운 본보기인 것입니다. 개척자들의 역사중에서도 브리감 영은 으뜸 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광야에서 정착지를 찾던 당시 개척선발대의 요원이었던 백사십팔명의 잠자리와 급식돈제가 모두 그에게 매달려 있었고 계절은

이미 늦어 농작물을 그곳에 심어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가망은 전혀 감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백사십팔명 이외에도 예언자의 순교 이래 새로운 지도자를 쫓아 정든 땅 나부틀 버리고 새로운 안식처와 평화를 찾겠다는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난 자가 수천명이었으니, 미시시피강 서편 쪽으로부터 약 백 사십오마일 떨어진 아이오와주 유니온읍 피스가 산에 약 이천여명이 있었으며 카운슬 블러프에서 동으로 백이십육 마일 떨어진 아이오와주 데카뷰어군 가든. 그로브에는 다른 무리가 있었으며, 오마하로부터 육마일 떨어진 미시시피 강변과 윈터스퀘어 부근에는 다른 육천명이 운집해 있었으며 이미 만명은 대호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두고 있었으니 생계의 가능성이란 더욱더 희박해지지 않았는가!

대 지도자 하나를 믿고 아직도 그 도습이 들어나지 않은 피난처를 향하여 진군하던 몰론이 브릿티쉬. 아일과 이미 그레이슨 계곡에 두력 사만이었다고 모두들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지적인 판단을 능가하며 사람의 체험적인 지식보다도 뛰어난 것은 이 대지도자의 하나님께로 향한 두터운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를 인도했던 신앙을 입증해 주는 말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쉴트레이크 계곡을 바라보았을 때 빛의 영이 내게 임하여 계곡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았고 그때 나는 이곳에서 성도들이 안전과 보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높은 경지에 이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확신 곧 협제의 도는 불협 화음을 가능한 미래의 조화로 바꿀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길이 살아 멸하지 않을 것이오 그들의 급히 줄 도트는 불굴의 정신과 영웅적인 정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선구자

의 자리를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비할바 없이 놀라운 이 야기를 읽는 자들에게 빛의 용기를 더하여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자리를 잡고 번영하게 된 수백의 크고 작은 무리들이 브리감.영 대관장의 개척자로서의 탁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히 지킨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대한 담백한 그의 마음과 상호간의 협조를 고취한 영감적인 그의 능력,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경건심은 그의 지도자로서의 위대성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야말로 진실로 이 개척자들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품성이었습니다.

* * * * *

(44페이지에서 계속)

이었으며 매달 보수는 작은 것이었다. 나의 아내와 나는 둘이 다 더 많은 빛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구의 일부는 임시 변통으로 사용하였다. 나는 내 아내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 때로는 저명한 인사들도 있었다 — 깨끗하기는 하지만 조야한 여러 조건에서도 태연자약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었던 태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인이든 유폭인이든, 아시아인이든 그녀는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해 주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어나는 것들로서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다.

자매들은 누조회를 통해서 다양스럽고 소박하며 창의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 먼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가정은 행복에 넘칠 것이다*

당신의 족보는 무엇인가?

"나는 이형제입니다. 당신의 편지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고 헌관에서 한국의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탄생하여 후에 토스엔젤스에 이주하여온 이 영범형제는 족보 위원회 동양 기록의 책임자인 이 다블유. 쥘슨 씨 토 부터의 서신을 받고 달려 왔습니다.

1962년 이형제는 족보위원회에 그의 가족들의 기록을 어떻게 할가하고 물어편지해 왔습니다. 그 당시 동양부에는 이와같은 편지를 취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1964년에 한 구획이 조직되어 쥘슨 씨가 금년 초에 한국 선교부를 통해서 이형제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안되서 이형제는 쉘트레이크에 있는 쥘슨 씨 집에 그의 가족들의 기록을 가지고 자진해서 달려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개종하여 선교사를 지냈던 이 한국의 젊은이는 이제 명주실로 책을 내어 집으로 접은 당지(창호지)에 자세하게 인쇄된 기록을 32권이 나 주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족보위원회에서 처음 받은 형태와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귀족과 다른 가족의 이 씨파의 합동자료는 27대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의 문서들입니다.

이형제의 유타여행의 목적은 그의 기록을 가지고 위원회들도 도와주며 30,000 이상이나 되는 가족들을 교회의 마이트 필름에 복사해두는 차비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쥘슨 씨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생일을 알아낸다거나 가족들의 기록에서 배껴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예를 들면 한국인은 그들의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형제의 증조할아버지인 이민중 씨의 생일

을 알아내려면 조사원들은 4161년에서 2333년을 빼야합니다. 이 4161년은 기록들에 의한 이민증씨의 탄생년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이 생년월일을 1828년(서력)으로 환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음력 날짜를 지적하는 두문자 엘자로 기호를 붙여두어야 한다"고 켈슨 씨는 말했다. 이 방법은 아직도 연구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사용하는 소리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 중국식의 호를 적어두었다는 것을 이형제의 32권의 족보가운데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발명했는데 이 왕은 15세기에 살았던 한국의 유명한 한시족의 한사람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의 스펜서 제이. 팔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이고 족보에 유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펜서 제이 팔머 교수는 지금은 한국 선교부장으로 계십니다.

이 영범 형제는 장노 신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회원인 세형제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금년 여름 브리감.영대학 하계 대학에 나갔으며 지난 7월 17일 토스엠펙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이곳 유타를 떠났습니다.

이 기사는 1965년 7월 17일자 "처치.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한글날의 향연"

한국 선교부 상호부조회 바자회

10월 9일 오후 1:00 - 9:00

장소: 선교부 강당

오후. 1:00 ——— 작품판매

각지부 수예품, 쿠키, 캔디, 케이크 판매

오후 2:00 ——— 게임 및 활동

— 어린이 게임

— 배구대회 한국 지방부 팀

미군 지방부 팀

선교본부 팀

— 탁구

— 유도시범 박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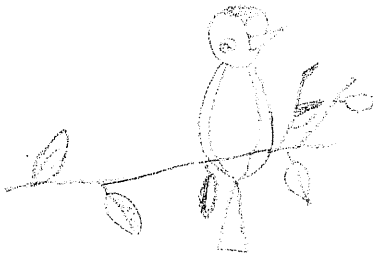
— 서화전 홍숙호

— 보석 수집전 루스 형제

오후 5:00 ——— 저녁식사: 음식물 판매

오후 7:00 ——— 프토품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오락.



— 결혼 후의 일년 —

하블라 엘. 데알러

제 2 부

이제 우리는 봉사의 조정에 관하여 몇가지 점을 이야기해 보자. 이것은 특히 교회에 중요한 것이며 교회 회원의 시간이 교회나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너무나도 그릇되게 필요시 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하다. 여러분 각자가 대중적인 봉사를 위해 당신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크립에 가입한다거나 연극을 감독한다거나 연극에서 역할을 맡는 다든가 댄스를 하기 위해 장식을 한다거나, 위원회에서 봉사한다거나 자비를 베푼다거나 또는 교회내에서 많은 일을 봉사하거나 가정의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봉사할 때 또한 공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결혼후 일년이 된 젊은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주며 가능한한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보아 판단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교회나 대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으므로서 당신이 함께 일하며 훌륭한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이 집에 있지 않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종일 집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당신들의 결혼은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적인 조정은 당신들이 모두 신전에서 결혼하기를 계획하므로서 말일성도들에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결혼한 후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당신 가정에서 기도를 갖는 것이다. 내가 강력히 권하는바는 당신이 새가정을 구

민 첫날부터 매일 매일 당신의 가정에서 가족기도회를 받드시 갖도록 하라는 것이다. 밤에는 당신 개인의 기도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당신의 새 가정과 새생활에 하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주 기도하라.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지 않은 음식은 결코 취하지 말라.

결혼후의 일년동안에, 당신이 가정에 병자가 발생한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의 장노를 부르겠다는 생각을 가지라. 당신 가정에 병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장노들이 온다는 것은 병고치는 힘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그들의 다스림은 회복을 가져다 줄것이고 여러가지 병을 고쳐주리라는 것은 나의 판단이요 간증이다.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라 위험스러운 고속도로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도록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 당신이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구하라. 일찌기 훌륭한 관념을 세우라.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가 생기고 그들이 특별한 시험에 부닥치거나 특별한 준비를 하거나 위험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보호하며 돕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게하라. 만약 당신이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며 당신의 가족을 풍성케 하여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엔 물론 사교적인 조정문제가 또한 있는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할 몇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당신의 공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집에 있을 것인가?
2. 여행이나 피크닉에 관한 두 사람의 관념은 어떠한가?

3. 생일 축하에 관한 당신 가정에 있어서의 관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일 축하케익이 있는가. 특별 만찬이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날에 특별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가. 또는 망각하고 있는가?

4. 당신 가정에서의 크리스마스 관습은 어떠할 것인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것인가. 선물이냐 장식이나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다. 때때로 어떠한 일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할 때 그것은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현명이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또한 오락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차이가 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락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오락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락은 취미와 같은 것이다. 즐거운 일을 함께 결정하라. 둘이 다같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당신들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휴가 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휴가는 어떻게 지내며 어디를 가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으로서 대부분 결혼후 일년동안에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써 자녀들이 생겼을 때 도범을 보이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줄 방향으로 영광스럽고 훌륭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요한 조정문제 중의 하나는 부성과 도성의 조정이다. 내가 강하게 믿는바는 당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당신들이 심중히 생각하여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조정되도록 하여야 할 일중 중요한 것은 당신 아내의 임신 기간이다. 당신이 이해하여야 할 것은 이

기간에 이삼주일이나 몇달동안 심한 병으로 불편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몇몇 사람은 경험치 않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여자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이 기간동안에 남편은 동정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 사랑을 표현하는 커다란 자제심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에 당신 가정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신의 사회생활은 변하여야 할 것이며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물질적인 관계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이해는 깊어야 할 것이며 당신의 동정과 감사는 특히 남편 쪽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남편은 더욱 가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는 다같이 아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다같이 그 방법의 책을 읽고 이야기하듯 아기가 생겼을 때, 충격이나 교란이나 기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공포도 없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 부부간의 성관계는 한정된 변화가 있다.

내가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당신에게 매우 가치있는 충고를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하고 다정한 의사와 이야기 하라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아내는 과민하여 때로는 번민하고 울음을 터트리기 쉬우므로 필요없이 여자만 혼자 있게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며 아내에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자는 어떠한 때보다도 임신중에 더욱 자기 어머니와 심히 접촉하고 싶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자기 아내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남편은 그것을 가능케 하여야 할

다. 임신기간중 아내는 자주 여러가지 공포심을 갖게 된다. 여자는 아기의 특징을, 또는 태아기에 있어서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여자도 자기 아기의 특징을 지어줄 수 없음을 지금은 확실히 된 사실이다. 선하신 주님은 출산 과정을 계획하셨을 때 이것을 염려하셨다.

내가 젊은 아내들에게 한마디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는 이 기간을 남편의 동정을 얻기 위해 고의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과 이해이다. 만약 당신이 올바르게 똑바로 생활하며 정직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결혼한 젊은 부부는 각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적인 동반자이며, 당신들은 둘이함께, 하늘로부터 보내어질 영을 상속 받을 개인의 육체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은 훌륭한 일이다. 이것은 놀라운 책임이며 만약 합당하게 이해되었다면 그리고 예상되었다면 하나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며 당신 생활에서 매우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와 어머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들을 조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신은 당신 각자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욱 적은 시간을 각자 가져야 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역시 잠자지 않고 밤을 지새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아이가 병이 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길은 항상 있다. 아이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병을 앓았고 건강하게 되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며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다룰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를 기를 때의 근본적인 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기가 탄생

하기 전에 당신은 아기가 울 때 안아주거나 혼자 잠자게 하거나 친척이나 친구들 들레에서 뛰여 놀게하는 것 등에 관하여 동의해야할 것같다. 규칙적으로 먹이는 일이나 아이들을 기르는 많은 다른문제와 같은 것들은 역시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에 의해 이야기될 수 있다면 가정에 불확를 가져다 주기 쉬운 오해나 많은 어려운 짐을 근절할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려 했던 것들은 당신의 생활에 초래되는 부조확의 수를 적게 축소시키려는데 있다. 나는 결혼생활이 나쉽이라는 인상을 주고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불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완강하고 교육받은 잘 훈련된 젊은 부부가 엄격하게 똑같이 사들을 판단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훌륭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못된다. 거기에는 분명히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꾀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함께 생활하기를 바랄 수 있는 일이된다.

토맵스를 살리는 문제에 관하여 몇마디 말해보자. 이것은 결혼후의 일년동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결혼생활을 통해서 적용될 것이다. 어찌하여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짐이 없이 해가 갈 수록 더욱 사랑할 수 없게 되는지는 이유가 없다. 토맵스를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시토자 한다:

1. 가끔 저녁 파티를 함께 가지라.
2. 함께 춤을 추러가라.
3.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착용했던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가지라.
4. 항상 사랑스럽고 매력있게 하라.

5. 남편이 떠나 있을 때에는 남편은 꽃이나 과자나 선물을 보내거나 전보나 또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남자는 이 마지막 제시를 항상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는 자주 그렇게 하므로써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문이나 안전성에 관한 회의심을 갖지 않고 남편의 가정 곧 자기의 가정을 위해 전념하도록 하며 남편의 사랑과, 그의 가정과 가족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선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라는 것을 항상 느꼈다. 이것은 그다지 경비가 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남편은 언제나 그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꼭 한가장이 아름다운 장미꽃 봉오리를 사왔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토매스를 유지시켰으며 해가 거듭함에 따라 이 부부는 다른 젊은부부가 바라는 도범을 보여주게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기타의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의 결혼 기간 동안에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시 되었던 장소를 기억하고 방문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당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경험을 살리라.

"권태로운 빛"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만약 부부간의 행복이나 당신 각자가 갖고 있는 흥미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몸치장을 게을리하거나 옷차림을 게을리하거나 "기혼자로 보이는 것"으로 보통 생각되는 것을 태만히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다. 그것은 다만 무관심하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관심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당신의 태도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래와 뒤를 바라보기 보다 오히려 위와 앞을 바라보도록 하라.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바 당신들은 결코 서로가 공룡이 되도록 하지는 말라. 당신들은 서로 놀라게 해주는 방법을 항상 찾도록 제시하는바다. 이 세상에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아내와 어머니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항상 느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든 기쁨을 느끼게 할 것이며, 자기의 생활을 정돈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이러한 형태의 동반자이며 아내인 매일의 생활 일부들 갖는 방법으로도 가정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남자가 행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행동하며 생각하는 것은 그가 가질 가정의 형태라고 나는 믿는다.

결혼생활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험일 수 있음을 나는 간증한다. 가장 행복한 결혼생활자는 함께 조화들 이루며 생활하기를 배우고 아늑담게 보이기를 배우므로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나타내며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다.

* 지난 5월호에 1부를 개제한 후 "성도의 벗" 중단으로 2부를 이제 개제한대 대해서 역자인 지영달 형제님께 사과의 뜻을 드립니다. - 편집자 -



상호부조회 공과

신학: 교리와 성약

로이 다불유 독시 장노 씀

제 65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목적: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기능중에 나타나는 자비와 정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서론:

1832년 봄, 예언자 조셉 스미스가 미쵸리주 제슨군을 방문했던 일이 있은후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1964년 7월호 상호부조회 잡지에 게재된 신학공과 63과에서 우리들은 시온에 있는 감독 에드워드 파트리주와 관련된 한 문제에 관하여 배운바 있다. 미쵸리주에 있는 교회 권위자들과 성도들이 헌납법하에서 그들의 세속적인 복지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언자는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1833년 1월 14일 그는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의 편집자인 다불유. 다불유 펄프스에게 서한을 냈으며 그중에 교리와 성약 88장으로 알려진, 1832년 12월 27일 자로 되어있는 게시를 동봉했던 것이다. 이 게시는 예언자 자신이 "감람나무 잎"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의 멧세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예언자의 말씀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나는 우리가 낙원의 나무에서 딴 감람나무 잎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멧세이지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시온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새언약의 요구에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우리

들에게 품고있을찌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나라들의 구원을 위하여 커트란드에 그의 이름을 세우시게 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의 말씀이 험없이 깨끗하게 전파될 어떤 장소를 소유할 것이며, 만약 시온이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보기에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며, 그분의 일은 이스라엘이 모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을찌라도 그의 진노를 느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노여움이 무섭게 타오르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며 또한 시온의 모든 주민들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교회 정사 1:316)

28장은 그 취급하는 범위가 특수하며 사고의 극치에 이르는 교리와 구원의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계시의 첫 몇구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수개의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천사들이 그 형제들을 보고 기뻐하나니 이는 그들의 기도가 만군의 주에게 이르러 해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성스러운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교회와 성약 88: 1-2)

" (만군)이란 말은 (주일)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님은 많은 무리의 주인이시다.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교회의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부에 자기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그가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 시킨적이 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결과로써 하늘에 보관된 기록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1950년 9월 대회 보고서 10페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행한 선행은 우리의 영원한 은혜에 이바지 한다.

보혜사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두분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요한복음 14: 16-26) 88장에서 주님께서는 오직 한분의 보혜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으나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3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옛날 제자들과 말씀하신 것을 상기해볼만 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그들은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하는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나 제자들은 스스로 복종하므로써 성령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언급한 보혜사는 성령을 일컬으며 이 성령은 개종자를 가르치며 그가 기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 오리라고 하였다(요한복음 14:16-17)

성령과 동일한 보혜사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할 제이의 보혜사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함께 하시리라(요한복음 14장 21,23)

조셉 스미스는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교회의 회원이 되고 제일의 보혜사 즉 성령을 받은 다음 계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스스로를 겸손해지며 자신의 신앙의 시립을

극복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끔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머물것이라고 하였다. 예언자는 또한 말하기를 축복은 옛날 성도들이 받았던 것으로 그들에게 시험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정사 3:380-381)

88장에서 성신으로 알려진 보혜사는 "약속의 성령"이라 언급되고 있다(3절) 다음절에서 이 보혜사는 "영원한 생, 즉 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절) 여기서 언급된 바 영생이란 신성의 획득 혹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것 또는 부활후에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88:5, 76:54-60)

그리스도의 빛

교회의 회원들은 영생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성령의 은사를 누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88: 3-5) 주님께서는 칠패토써 그와 더불어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위안의 멧세이 지를 준 다음, 그의 능력과 온 세계의 자녀들이 그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교시하였다. 하나님이 계신곳으로 부터 거대한 공간을 채울만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트쳐 주신다(88:12) 그 성령, 영향, 그리고 그 힘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은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곳에나 있는 사실이다.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다고 하지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예수님은 전세에서 이 지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으며 현재는 인간의 대속주이시다. 이런 이유와 또한 다른 이유로,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승영에서 모든 능력을 얻은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런지도 도통다. 주님의 빛으로써 이룩되는 네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기술하면

이러하다: 1) 창조적인 능력, 2) 생명을 주는 힘, 3) 지배하며 지지하는 힘, 4) 계발하거나 또는 영감을 주는 힘.

창조적이며 생명을 주는 힘.

다음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해, 달, 별, 그리고 우리가 험재 여기에서 있는 지구가 창조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88: 6-10)

비취어 너희를 밝혀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주는 그 분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너희 오성을 깨우쳐 주는 바로 그 빛이니라; 이 빛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와서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이니라 — 그 빛은 모든 사물중에 있으며, 모든 사물에게 생명을 주며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이니라
.....(88:11-13)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창조물 — 모든 사물에 현현된다고 여기에 기술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큰 우주와 이 창조물들의 질서에 경악해 왔던 것이다. 많은 생각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창조물 그 자체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뒷바침하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인을 반대한 토리호어가 알마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념에 보탬이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예언자는 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많은 증거를 이미 보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알마는 예언자의 간증에 첨가해서 말하기를:

"...경전이 네 앞에 놓여있으니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땅과 땅위에 있는 만물과 그 움직이는 것과 또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유성이 가장 높으신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알마서 30: 44)

누구든지 자연의 놀라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뒷바침이 되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예지 — 고무하는 힘.

이미 언급한바 "그리스도의 빛"의 기능인 능력에 첨가하여 각 개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축복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수여되는 계발,과 영감과 지시의 능력인 것이다.

비취어 너희를 밝혀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 주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너희 오성을 깨우쳐 주는바토 그 빛이니라;

이 빛은 하나님이 계신곳에서 나와서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이니라 — (교리와 성약 88: 11-12)

욥이 말한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라고 한 것은 이 "빛"을 상기시키는 것이다(욥기 32: 8) 또한 현대계시에서 발견되는 하기의 이념들은 이 성령에 관한 부가적인 지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2)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리 빛, "그리스도의 빛"인 영이다. 3)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빛을 받는다. 4) 인간이 그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정도만큼 그는 빛을 받으며 드디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까지 이르게 된다(교리와 성약 84:44-47)

이런 진리들은 말일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빛"의 기능을 이해할 때 그의 눈은 하나님이 그의 우주를 다스리는 길로 열려 정의와 자비라는 하나님 속성이 어떻게 실제 작용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사도행전 17: 28)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의 행복을 염려하실까? 땅과 땅위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부활을 받고 충실하다면 영생을 얻도록 주어진 것이다(토세서 1장 39절) 주님께서서는 만약 인간이 그에 준하여 행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시 인도해갈 충분한 빛과 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돌론경의 예언자 돌론이 이 진리에 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을 악에서 알 수 있도록 하셨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리라. 선을 행하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권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전능과 은사를 보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압전하게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으므로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형제에게 칭하노니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부지런히 탐구하라. 만일 너희가 일체의 선한 것을 확고하게 붙들여 청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리라(도로나이서 7:16, 18, 19)

십이사도 직장이신 조셉 윌딩 스미스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암흑속에서 헤메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성의 힘, 진리의 빛 혹은 타고난 그리스도의 빛으로써 선과 악을, 진리와 허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이 진리에

서 떠날 때 지성의 힘은 그를 저버리고 그러한 연유로 그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온전하게 되는 길 230 페이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각종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진리는 88장 63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그 교훈은 이러하다: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날 것이며 그의 진귀한 것들이 너희에게 열리리라.

계시 — 돌본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하는 그의 욕망을 실패할 때에 알마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셨다.

보라 주께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 나라 말로 주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두엇이나 허락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정의와 진리에 따라 지혜롭게 권고하심을 우리가 아느니라(알마서 29:8)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으로써 받은 영감을 통하여 온다. 이 원리에서 다시금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족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충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진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각자가 소유한 빛과 지식이라는 위대한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교리와 성약 76:110-111)이 원리를 참조하여 조셉 스미스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쳤다.

"...그 분은 그의 두손에 심판의 고삐를 쥐고있다. 그 분은 현명한 입법자이며 좁고 위축된 인간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그가 선하든 악하든, 혹은 그들의 행동이 영국, 미국, 스페인, 터키 혹은 인도에서 이루어졌건, 관여하지 않고, 그 개인이 행한 행동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분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갖지 않은 것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며" 율법없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율법없이 심판을 받으며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위대한 역호와의 지혜와 지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그들의 공적에 따라 그들이 지성을 얻은 수단에 따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에 따라,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편의에 따라 인간 가족 유대에 대한 그의 오묘한 계획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심판 혹은 자비를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미래의 장막이 걸리워질 때 모든 사람은 드디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교회정사 4: 595-59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통치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위대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할 뿐시 모른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며 특히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말일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비.에이취 토버트 장노가 기술한 다음의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분은 성취되는 일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저지되는

것도 아신다. 그 분은 덕을 얻기 위한 투쟁 —의에 굶주리고
독마른 사실에 대해서 아시며 유혹의 힘과 유혹받은 자기의
약점에 관하여 아시며 마음속을 아신다..... 그리고 그 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써 심판하며 질책하시리라(이사야 11:3,4) 외
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리라"(요한복음
7:24)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기복과 신빙성 있
는 보고를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내려지는 환난
이 부분적이거나 편협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악한자를 두려워 떨게하나 그들의 의도가 옳
바르며 공의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를 볼 수 있도록 그
들에게 시험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의 생
활개념을 알리고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격려를
받게 될까! (1912년 5개년도 칠십인의 신학 공과 과정 13페이
지)

하나님의 보편성(모든 곳에 계시)

아대네의 마 인덕에서 크게 사설교하실 때 바울은 모든 사람은
살아서 기동하며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존재함을 받았다는 원리에
대하여 말하였다(사행 17장 28절)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영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개념은 배도된 기독
교 세계에 편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가르침
은 진실한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세에 받은 그의 계시에서
그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위치시켰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 자체
로서 오해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인 그의 성령에 의하여

어느 곳에나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는 살과 뼈를 가진 인간적인 존재이며 개별적으로 한 때에 한 곳에만 존재한다(교리약 성약 130: 22)

성령과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은 서로 다르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전자약 후자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맥을 더듬어 보면 그 말이 서로 특수한 경우에 각각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종이나 피부색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요한복음 1:9) 반대로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사행 5장 32절) 후자는 안수례에 의하여 받는 특별한 은사이다(사행 8장 14-17절, 교리약 성약 33장 15절) 또한 "수시"로 있는 성령의 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복음의 빛에 끌리고 있을 때 성령의 힘에 의하여 간증을 얻는 것이다(도로나이 10:4-5) 그런다음 그가 침례약 신권을 가진자에 의한 안수례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 간증은 그에게서 떠나게 된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우는 그 능력이 알려졌다, 침례를 수락한 경우이다(사행 10장) 예언자 죠셉 스미스는 이 경우를 언급하면서 만약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았다면 성령은 그와 더부러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였다(교회정사 4: 555)

죤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님의 영광과 성령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 단어들은 때때로 비슷하게 사용된다.

때때로 성령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성령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 가운데에 있는 한 분이시며 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며 끊임없이 인간들과 함께 있으려 하며 드디어는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져다 주며 더 큰 빛과 성령에 관한 간증을 갖게해 준다. 그러나 그가 보다 큰 빛을 받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에 반하여 죄를 지면 성령은 그와 더부러하기를 그치고 성령은 완전히 그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1956년 판 복음교리 67-68 페이지).

토론을 위한 질문.

1. 88장은 어떻게 하여 "감람나무 잎"이라 알려져 있는가? 토론하시요.
2. 교회에서 회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하늘 왕국에 구제되는 것일까?
3. "그리스도의 빛"이란 무슨 뜻인가?
4. 토론: 인간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예증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은 인간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나 계시다(보편성) 진리를 충분히 알아라.
6. 토론: 성령과 주님의 영은 다르다.



방문교사 멧세이지

교리와 성약에 의거한

생활의 진리

트리스틴 에이취, 토빈슨 씀

멧세이지 65 — 나는 너희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의 계명을 주노라(교리와 성약 88:77)

1965년 10월 첫 도입을 위하여

목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서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는 자기의 생애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신 다음 예수께서는 나가서 서로 가르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가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준 교훈을 잊고 이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환원한 몇 제자들이 있었다. 그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의 가르칠 책임을 재 강조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뵈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 성경에는 하나의 극적인 사실도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수는 그에게 그의 양들을 먹이라고 세번 거듭 말하였다(요한복음 21:15-17) 그런다음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서 떠나시기 전에 나가서 모든 나라에 가르치라는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도

든 것을 가트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 28:20)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서토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가트쳐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도 서토 가트칠 성스러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진리를 이해할만한 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여덟살이 되었을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리를 가트치지 못했다면 그 죄는 부모들의 머리위에 떨어지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68:25) 더우기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것"을 가트치지 않으면 안된다(교리와 성약 68:28)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라"고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복음의 기본개념중에 있다(교리와 성약 93:36)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교리와 성약 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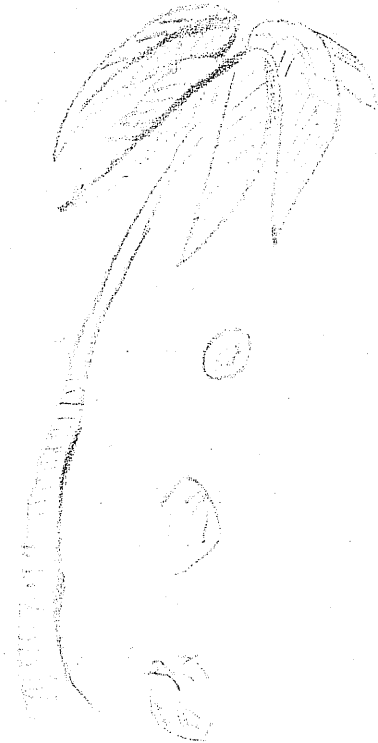
지식, 지성, 그리고 종교적인 훈련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얻는데 근본적인것일뿐 아니라 내세에서 최고의 승영을 얻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트치고 있다.

분명히 지식을 얻고 그것을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공부하고 배우며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이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가트쳐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다(토마서 2:21)

부리감 영 대관장께서 이같은 기본 진리를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처럼, 빛과 지식을 얻고, 성스러운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 줄 때 또한 자신이 성장하고 증가되며....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드토써 지식과 총명을 일제 됴을 깨닫게 될것이다(설교집 2:267)

도든 복음 교육의 근본목적은 우리가 이 진리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드토써 복음생활에서 오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보다 훌륭한 지식을 얻는데에 있다. 지식 그 자체는 건설적이고 보람된 생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배우는 자의 실제 생활 행동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그 가르친 자는 복음진리를 실제로 못가르친 셈이다. 밀톤은 이런 사상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도든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런 지식을 알드토써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일 도입

행복한 생활의 창조

위니 프레드 씨. 자아딘 슝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

1965년 10월 둘째 도입을 위하여.

목적: 주부는 가족과 자신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 검토하는 것.

"행복은 우리의 노변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정원에서 구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글라스 제롤드가 기술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 집이 크던 적던 우리 환경이 넓던 좁던 그것에는 하등의 관계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곳에서 찾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멋있는 새차를 몰고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친구의 우아한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의 환경(조건)하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 이 교훈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시기 질투라는 칼날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여 행복은 서서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몇년전 어느 대학 촌에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 결혼을 해서 조그마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수위의 일을 보기도 하고, 작은 보수로 시간제 교사도 하고, 가족들이 입을 옷을 꿰매기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며 때로는 어느 밤이나 낮을 이용하여 오락이나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가장 간소한 것들을 가지고 보내기도 하는 이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후에 교수, 학학자, 회사의 부사장과 중역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돌질적으로 대단히 궁핍했던 그때의 일들을 아름다웠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그들의 재치있던 마음과 창조적인 수완을 다했던 데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는 어떠한 행복은 이런 창의적인 풍성한 활동에서 자라는 것이다 — 뒷뜰에 화단을 만들고, 의자를 손질하고, 쓰레기 통에 칠하고 사진에 틀을 끼우고, 찬장을 만들고 조그마한 땅에 장미를 키우고 씨를 뿌려 꽃을 피우게 하고 겨울을 지내도록 제라니움을 간수하면서 — 이러한 일은 부유한 가정에서도 행복을 더해 주는 일들이다.

제한이라는 말은 문화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도서관(서재)은 풍부한 서적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그곳에는 가정에서 검토하고 즐길만한 훌륭한 기록과 아름다운 인쇄예술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심포니, 오페라, 발레 그리고 연극 순서를 제공한다. 커다란 도시에서는 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 조그마한 극장과 예술협회들을 앞을 다투어 가며 만들고 있으며 자발적인 역군들을 환영하고 있다.

무요하게 음악회를 들어볼 기회를 찾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종종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문학작품 연구 활동 구획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은 수많은 주제 토씨 밤에 갖는 토임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회와 편의는 재능 교습을 바탕으로 하여 잘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시면 저

는 당신의 따님에게 요리 강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바느질 교습을 교환 조건으로 하는 미술 교습, 무용 교습이나 애 보기를 교환조건으로 하는 연설 교습, 이러한 것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과 공원을 방문한다는 것, 또한 흥미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을 방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즐거움과 자극을 가져다 준다. 가족이 그런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족은 창조적인 재치로서 어떠한 제한도 둘리킬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잦아올까! 어느 가족에게 있어서나 가장 큰 기쁨중 하나는 가정에 손님을 모신다는 것이다. 가족과 가족끼리 함께 가족의 밤을 갖게할 수도 있다. 먼곳에서 오신 손님은 가족들간의 화기를 꼭 돌구어 주기도 한다. 처음으로 비 말일성도 가족들이 초청을 받아 말일성도 가정인 당신의 집에 올 수도 있다. 이럴 때 자녀들은 예의있는 주인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재미있는 화제에 참여하여 즐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집안의 분위기를와 식사를 애써 꾸며 놓고 차려놓 필요는 없다. 만약 가족이 함께 그들대토의 격식에 따라 플랜을 짜고 성의껏 우아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대접한다면 손님들은 따스한 분위기에 흡사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꼭 기뻐할 것이다.

가정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이 있다. 그것을 그들은 진귀하게 여긴다. 사용하는 그릇, 음식을 차려서 내오는 순서는 각각 다를 수도 있다. 그 음식이 값비싼 것이 아닐찌라도 늘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멤버였던 존 에이. 워드소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앞서 여러해 동안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진 빛은 큰 것
(15페이지에 계속)

문 학

문학에 표현된 개인과 인간의 가치

부트스 비.틀라트 장토 씬

제 9과: 선과 악 — 제 1부

(교재: 양서 281-328 페이지에서)

1965년 10월 넷째 모임을 위하여

목적: 악을 극복하고 선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투쟁을 문학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 과는 신념도에 들어 첫공과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감상과 비판 방법을 간단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은 일년전에 네가지 시도에 관하여 약속한바 있다. 즉: 문학작품의 의미와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플라토니 방법, 언어와 형식, 그리고 예술작품으로서의 작품자체 즉 내재하는 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알리스토텔리안 방법; 과거 고전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시대적인 판단 방법을 강조하는 호메시안 방법; 작가의 독특한 창작력과 개성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끼쳐준 이 작품의 미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통지니안 방법이다. 이 네가지 방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어느것 하나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고 암시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말일 성도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건리를 무시하도록 통찰력을 주는 작품 자체를 높히 평가하는 플라토니 방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반지도자로서 또한 독자로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유도해 오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배경과 연관시킬 때 더욱더

그 의미와 가치가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이런방법으로 문학작품에 접근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인가 탐구해 내려는 노력이 그 작품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달의 공과는 네가지 발췌문—우주의 짧은 시, 한수의 피긴 시, 그리고 하나의 짧은 얘기—을 다루었다. 이것은 모두 인간 경험중에 나타난 선과 악의 복잡한 관계와 특히 악을 극복하고 선을 지향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얘기로 엮여져 있다. 교재 283페이지 서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아마도 죄를 범하고 죄사함을 입는 문제에 관계되는 선악간의 문제들 문학에서 만큼 다루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것일수록 더욱 많이 다루고 있다. 참으로 옛날부터 문학에서 처럼 종교와 철학에서 사상가들이 당면해온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종종 그 근거가 인간 상호관계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선과 악이라는 본질에 뿌리를 뱉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는 다함스럽게도 현대 예언자들의 영감받을 기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문학상에 나타나는 저명한 사람들의 말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랑이

이 세상의 모든 악에 관련된 문제에 극적으로 빠져들어가기 위하여 윌리엄 브레이크(영국 시인 1757-1827) 쓴 "호랑이"란 조그마한 시에서 출발해 보기로 하겠다. 이것은 교재 285페이지에 여기서보다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호랑이"를 읽을 때 그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브레이크의 대조되는 시—교재 91페이지에 인쇄된—"양"이라는 시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두 시는 명백하고 강

떨하게 대조되어 나타난다. "그 양"은 부드럽고 자랑스런 시이며
 나약한 아름다움과 경건한 음울을 지닌 시이다. "호랑이"는 강렬
 하고 잔인하나 그 대조는 그 언어와 음울에 나타난 바로 그 차이
 점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독자들은 그 "양"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상징하며 그런가 하면 호랑이는 파괴적이며 악랄
 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볼 것이다. "호랑이"에서
 두 수의 시를 서로 연결시키며 그 시들이 각각 찾고져 하는 핵심
 을 찌르는 키 라인은 다섯째 절에서 시작된다. "양을 만든 그
 분이 너를 만들었느냐?"라는 구절로 브레이츠는 만물의 창조주이
 신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있다. 이 우주에
 있는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브레이츠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적어도 이 시에서는 그는 다만 질문했을 뿐, 남겨진 답은
 독자들에게 깊이 생각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우리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은 악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그 자
 녀들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하고
 그것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미지의 캄캄한 숲속"

토마스 울푸가 쓴 짤막한 이야기 "미지의 캄캄한 숲속"은
 복잡다단한 둔제들 더욱 깊이 파헤치고 있다. 이에 관한 것은 교
 제 287—301페이지에충분히 기술되어 있다. 그 여기는 시적인 스타
 일에서 풍기는 질은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지닌 그 내용에 있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원문에서
 처럼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주제는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선과 악
 의 극적인 얽힘인 것이다. 그 여기를 통해서 울푸는(미국의 소설
 가이며 단편작가 1900—1938) 모든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다 지니

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간본질은 대조적인 것
역설적인 것으로 특정지워진다. 인간적인 존재 즉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것과 흉한 것, 부드러운 것과 거칠은
것, 깨끗한 선망과 동물적인 야욕 이런 것들이 있다. 선한 사람
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전자는 오직 고상한 욕망만을 가지고 있
으며 후자는 악한 욕망을 가졌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의지력으로써 그의 고상한 욕망을 키우며 그의 악한 욕망을 억제
하나 후자는 의지력이 약하여 자신의 고상한 잠재력을 소도하며
동물적인 욕망에 굴복한다는데 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선행을 할
기획과 악을 행할 기획이 있다.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은 선한
기획을 선택하고 악한 기획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즉 인간 내적인 관가름의 문제이다. 누구든지 자신 악의
경향을 제압하는 내적인 투쟁에 승리한다면 높이 성숙한 단계에
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 울푸가 이 작품에서 한것만
큼 인간본성에 개재된 선과 악의 이원성을 우아하게 묘사한 작가
는 별로 없다. 예증을 들어 그 여기의 중간 부분을 좀 넘어서
(교재 293페이지) 몇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거기서 그는 서로
우세해지려는, 상반하는 두세력의 복잡한 투쟁에서 야기되는 비
극과 풀수없는 문제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울푸는 계속해서 인간의 가장 고상한 선망과 본능이 개재함
으로써 벌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에 관하여 명료하게 묘사했다.
"고매한 정신"은 "웅장한 음악"과 비교되며 악마의 투쟁은 "비참
하게도 끊임없이 동매한 동물적인 욕구와 결합된다"고 하였다.

여기가 훌륭하게 평가되는 것은 이런 대조적인 의식이 일의
모든 면에 묘사되는데에서 기인된다 —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젊은 남성과 정사에 골몰하는 추한 여인과 잘 비교되며 젊음은

노인과 비교가 되며 건강은 질병과 대조를 이루고 정신적(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여인과 대조를 이루며 정교한 언어는 거칠은 언어와 잘 대조를 이룬다. 우주 가운데에 — 또 인간의 마음 속에 — 존재하는 악과 선의 복잡한 관계에 관하여 책을 쓴 사람들은 많지만 울푸가 이 여기에서 한것만큼 눈에 띄이게 이 주제를 파헤친 작가는 별로 없다.

셰익스피어의 소넷 *94

지도자로서 의롭게 생활하며 악을 피할 우리의 책임을 가장 강하게 그러나 짚막하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은 셰익스피어의 소넷 9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넷 94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칠 힘을 갖고 있으면서 해칠 뜻을 갖지 않은 자는,
 은히 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강동시키되 자신은 돌과 같으며,
 확고하고 냉담하며, 유혹을 더디받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르게 상속받고
 절약가 본성의 부유를 손실에서 만나니,
 그들은 자기 체면의 주인이며 소유자이고, 또 미덕의 집사이
 또 미덕의 집사이도다.

여름 꽃은 여름에 향기로운것,
 꽃은 비록 저대토도 살고 죽고 한다지만, 꽃도 밀바다의 잡초도 채워지면, 밀바다의 잡초는 꽃의 품위를 낮추나니:
 가장 시름하게 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벼합은 잡초보다 훨씬 나쁜 것이기 때문이도다.

첫째 수직스피어는 인격의 힘과 확신의 힘으로써 평범한 사람들 위에 서있는 그런 사람—굳굳한 탑은(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조그마한 범덕이나 망상에 의하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결함을 제거하고 높이 나트며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유혹에게는 반석과 같이 굳건하기만 하다. 이런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또한 존경과 추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일찌라도, 유혹을 절대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전혀없다. 소인은 조그마한 선을 이루거나 조그마한 악을 범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선을 성취할 수도 있고 두서운 악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 보기도 두려운 일이다. 만약 소인이 사기나 횡령을 하거나 부도덕하다면 이것도 분명히 나쁜 일이다. 그러나 일개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기나 횡령을 하고 부도덕하다면 그 참화는 온 사회를 휩쓸어 버린다.

가장 달콤한 것은 자체의 범화로

가장 시름하게 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배합은 잡초보다

활신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의 요소는 이러한 것이다—근본적으로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약점 때문에 그것을 굴복하여 그를 둘러싼 세계가 산산히 부서지며 자신이 산산히 부서져서 멸망하는 것이다.

" 옛 수부의 노래 "

사투엘 테일러 토울리취(영국시인이며 비평가 1772-1834)가 쓴 "옛 수부의 노래"는 아마 이 공과에서 사용한 네개의 발췌문 중에서 가장 진귀한 것일 것이다(이시는 충분한 논평을 첨가하여 그 시집에 실려있을 뿐 아니라 토울리취의 일생기와 다른 책들 그리고 교재 304-328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옛 수부의 노래"는 토울리취의 걸작이며 세계 문학사상 손꼽히는 시중의 하나이다. 이 시도 많은 다른 작품처럼 다르게 읽히어지며 서로 다른 독자층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한 수부가 남부 유럽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나 태평양을 거쳐 드디어는 여행중 얻은 놀라움고 신기한 수많은 사건들을 지니고 옛 고향으로 돌아오는 재미있는 여행담 내지는 불길한 감을 주는 얘기로 읽을 수 있고 또는 독자들을 이 풍성하고 다양성있는 예술작품에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경험담으로서 주로 읽히어 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부도덕한 행위의 피할 수 없는 결과에 특히 관심을 둔 끝없는 투쟁에 읽혀있는 두 세력 즉, 선과 악의 묘사도 읽히어 질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것이 이 시를 읽는 오직 세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예술작품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옛 수부의 노래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위대하고 완성된 시로 꼽힐만한 것이다(그 예술성을 논하기 위하여 독자들은 교재 322-323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그러나 이 공에서의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그 미감보다는 그 의미에 있다—즉 그 시기 우주의 선악의 관계를 엮어논 것을 살펴 볼 때 악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것으로서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어네스트 번바움의 말에)

".....반 몸서리 쳐지며 반미치게 하고 조금도 얘기치 못하게 우리를 사토 잡으며 앞을 예상치 못할 증대한 일을 우리에게 던져

주는 장막에 덮혀 있으나 그러나 가공할만한 힘, 이것이 삶에 나타나는 진정한 악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악의 한 모습은 한 모양으로 분석할 수도 없으며 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와같은 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며 그 힘과 위대성과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초울리쥬가 추천한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훌륭한 문학작품이든 시의 골자를 형성하는 의욕에 대해서 의식적인 속단을 내리지 말고 시 자체가 그것을 말하도록 하며 우리 자신은 그 시의 마력과 놀라움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 까지는 그 시의 일곱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배가 미지의 바다로 향하여 얼마나 오랜 그리고 신비로운 여행을 했는가, 일진 광풍을 만나서 얼음이 장대처럼 솟아 떠다니는 추운 곳에 떠밀려 가기도 했던 얘기들이다. 이 함박한 지역에서 방향을 잃고 당황하고 있을 때 안전한 항해의 징조인 엘바르토스(새)가 그들의 배에 날아들어 선원들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 아프레동안 잔잔한 바다위를 조용히 즐겁게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 수부는 엘바르토스를 죽인다—생명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무자비하고 책임감도 없이 생각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였다. 처음에 다른 선원들은 그 수부가 행운의 징조인 엘바르토스를 죽이는, 저주받을만한 짓을 했다고 하여 비난한다. 그러나 여러날 동안 순풍이 계속 불어오자 그들은 짙은 안개를 불러왔던 그 "새"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수부를 칭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하여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한편 그들은 그 죄에 공범자들이 된다. 이제는 그들도 죄악을 범하고 그러므로써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부

만쯤 죄악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형벌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간 미풍이 계속불어온다. 그런다음 그 미풍은 그치고 매일 매일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었으며 마치 그림 가운데에 떠 있는 생명없는 배와 바다처럼 지루하게 된다. 바닷물은 모두 짜고 마실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진흙 바다위에는 두발 달린 진흙투성이의 어떤 것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지긋 지긋한 갈증에 목이타서 미칠것만 같은 이들은 이런 공지에 몰아 넣었다는 구실로 그 수부를 저주한다. 드디어 수평선 저쪽에 배한 척이 나타난다. 수부는 처음에 자비의 배인줄로 그것을 향하여 환호성을 친다. 그러나 다음순간 수부의 구조의 손길이 뻗치는 것을 볼려는 사람중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빈사상태에 있다. 점차로 선원들은 빈사상태에 빠지고 드디어 그들은 한 사람씩 그 수부를 저주하면서 죽는다.

자신을 살펴보건대 그 수부의 운명은 죽은자들 보다 더 나을 게 없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두 죽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는 기도하려고 애써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아직도 강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하여 죽은 바다의 죽은배에 있는 죽은 자들의 씩어가는 냄새속에서 그 수부만이 아직 살아서 자기 죄악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얼마후 이렇게 비참한 중에서도 대양의 물위를 헤엄쳐가는 돌쟁이를 보고 아름다움을 의식한다. 그리고 이 시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며 가장 극적인 대독에서(제 4부에서)기적적으로 그는 아름다움에 감격하여 "아!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야!" 마치 놀의 미풍과도 같은 사랑이 내 마음 속을 채우고, 나는 알지 못하는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위치고는 비토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수부는 지금도 죄악속에서 불가피한 죄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죄를 씻는 영광스런 첫 열매를 즐긴다. 이 시는 악과 선의 비유로서 여기서 끝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코울리주는 형벌과 구제의 복잡성을 알고 계속해서 이 복잡성을 파헤치려 한다—인간이 참회할 때 그 참회는 또다른 참회를 이끌어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과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코울리주가 이 시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아이디어이다. 코울리주는 선과 악의 본질을 투시하는 특수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일성도 독자들은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받은 보다 큰 통찰력으로써 코울리주가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완전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 수부는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언젠가 저질른 죄과로 고통을 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이 고통을 벗어나서 은자(성스러운 사람)로 돌아가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분이 내 영혼을 판단하시고 그 "엘바르토스"의 피를 씻어주시리라"고. 그러나 코울리주는 다른 현명한 사람이 알고 있듯이 어느 인간적인 존재가 다른 인간을 그 죄에서 구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은자에게 하는 간청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복음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의 속죄는 그가 회개하고 율법과 복음의식에 따르다면 그가 구제될 수 있게한다. 코울리주는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나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 수부가 대체로 회개하므로써 구제를 받게 했으나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과거의 그 행동에 다소 얼마

인채로 남겨 두었다.

이 토론에서 그 시의 도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만—매우 중요하다.— 그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소 이 시를 곡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그 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다른 면 즉 그의 예술성,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마술적인 기술법, 다양하며 섬세하게 구성된 통일성, 아름다운 확술의 매력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모든 것이 결합되어 이 "옛 수부의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 교사에게 알리는 말씀.

울푸의 "Dark in the Forest, Strangest Time"이 이 공과에 망라한 네개의 발췌문중 가장 난해할 것이다. 또한 만약 반 학생들이 이 교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전혀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호부조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빼버리고 다른 세계만을 가지고 전념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그런가하면 어떤 독자들은 울푸의 작품처럼 난해한 그런 작품을 좋아할 것이다. 반 지도자들은 그녀의 집단에 어떤 발췌문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판단해야 한다. 그 외의 발췌문들은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울푸의 작품들을 취급하지 않는 그룹(보조회)에서는 몇분간 블레이크의 "양"과 "호랑이"에 관하여 공부하고 몇분간을 슈익스피어의 쏘넷에 관하여 공부한 다음 나머지 시간 전부를 코울리주의 "옛 수부의 노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토론 문제.

1. 선의 상징인 양과 악의 상징인 "호랑이"라는 블레이크의 시에
(8페이지에 계속)

1965년 8월달 침례자 명단

성동: 허 경 복, 유 근 하, 김 일 우
 천 영 히, 한 명 수, 안 문 화
 김 일 동, 김 미 옥, 유 근 문
 이 범 옥.

삼청: 최 병 숙, 김 상 권

부산동구: 김 성 숙, 유 은 한, 박 명 진
 박 태 익

서부: 이 상 석, 김 미 자, 조 현 인
 신 도 일 한

청운: 심 현 천

부산: 김 민 자

"편집 후기"

드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며 "천고마비"의 계절임을 세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계절과 더불어 살찌야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벗"도 내용이 살찌기 위해 편집진을 강화하여 이번 한인상 장노가 발행인보로 취임하여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발행일차도 아래와 같이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원고마감 매달 13일

발행일차 매월 20일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 宣敎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운동 7번지
淸雲支部) 73-3995
三淸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 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73-1208
●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165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J. 팔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